

# 석전 박한영의 시선일규론(詩禪一揆論)과 그 문학사적 의의

고재석

## 1. 강단(講壇)과 문단(文壇)의 대중장(大宗匠)

석전(石顛) 박한영. 1870년 전북 완주군 초포면에서 출생, 부친 성용(聖鏞), 모친 진양 강씨, 본관 밀양 박씨, 속명 한영(漢永). 법명 정호(鼎鎬), 법호 영호(映湖), 시호는 석전. 추사 김정희(1786~1856)가 백파 긍선(1767~1852)에게 서증(書贈)한 휘호 ‘석전만암(石顛曼庵)’에서 시호를 물려받고 진진응(1873~1941) 장금봉(1869~1916) 화상과 함께 호남의 삼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쳤다. 만해 한용운(1879~1944)과 임제종운동의 주역으로 종지수호에 앞장섰고, 고등불교강숙과 중앙학림의 강사와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장으로 평생 강단을 지키며 수많은 학인을 가르쳤다.

광복 후 조선불교중앙총무위원회 제1대 교정으로 추대되었으며, 1948년 전북 정읍 내장사 벽련암(碧蓮庵)에서 입적했다. 속세나이 79세 법랍(法臘) 60세. 석전은 학림의 법제자들뿐만 아니라 학계와 문단의 석학들에게도 깊은 존경을 받았던 한국불교계의 대강백이며 대종장(大宗匠)이었다.

만해는 『조선불교유신론』(1913)의 첨(籤, 교열 또는 감수)과 『정선강의 채근담』(1917)의 「서언(敍言)」을 받고 “세속의 전적까지 섭렵하느라 남은 힘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았다.[涉獵俗典不遺餘力]”<sup>1</sup>는 그에 대한 존경과 신망의 예를 갖췄으며, 흙모의 정을 담은 여러 편의 한시를 바쳤다. 또한 육당 최남선(1890~1957)은 “고사에 대한 깊은 조예와 통찰한 식견으로 내경과 외전을 꿰뚫어 보았다.[故蘊通識淹貫內外]”<sup>2</sup>고 상찬하면서 평생 스승으로 모셨으며, 위당 정인보(1893~1950)는 “물외에 노니는 도인은 대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본다.[物外道人多見其不知量也]”<sup>3</sup>고 칭송하면서 스승 앞에 무릎을 조아렸다. 신석정(1907~1974)은 “세간의 물욕을 먼지처럼 털어버리신 스님의 풍모는 그대로 고담한 매화가 설중(雪中)에 피되 허울 다 벗어버리고 두세 송이 꽃으로 짙은 향기를 던지는 것과 추호도 다름이 없었다.”<sup>4</sup>고 스승을 추모하였으며, 미당 서정주(1915~2000)는 “방황하던

1 이능화, 『조선불교통사』(혜안, 2003) p.114.

2 최남선, 『석전시초』(동명사, 1940) p.1.

3 정인보, 『담원문록』상(태학사, 2005) p.278.

4 신석정, 『석전문초』(법보원, 1962) p.1

자신을 거두어 품어주고 문학의 세계로 이끌어준, ‘내 뼈를 덥혀준’ 스승<sup>5</sup> 석전을 향한 사모와 회한을 오롯이 담은 여러 편의 시와 회상기를 남겼다. 벽초 홍명희(1888~1968), 백화 양건식(1889~1944), 산강 변영만(1889~1954), 춘원 이광수(1892~1950), 가람 이병기(1891~1968), 범부 김정설(1897~1966), 철운 조종현(1906~1989), 조지훈(1920~1968) 역시 재가제자의 인연을 맺고 그를 따랐던 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전이 근대적 의미의 문단이며, 문화적 양산박<sup>6</sup>이자 조선의 아카데미<sup>7</sup>로 불리는 조선광문회의 젊은 주인 육당의 손을 붙잡고 명산대천을 유람하며 간산지법(看山之法)과 간문지법(看文之法)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학예일치(學藝一致)를 이상으로 하는 시서화 겸수의 문인취미나 서화골동을 애완하는 문인풍의 생활풍정에 냉담했던 ‘서화배척당’ 만해가 돈의동의 여박암(旅泊庵)을 방문하고 위창 오세창(1864~1953)이 가전(家傳)의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1,200년의 세월에 걸친 1,291인의 고서화를 사흘 내내 배관하고 전통의 새로운 의미에 눈을 뜨는 계기를 석전이 마련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욱 많지 않다.

석전은 이미 오세창, 최남선과 함께 산벽시사(珊碧詩社)의

5 서정주, 『서정주문학전집』 5(일지사, 1972) p.35.

6 조용만, 『육당 최남선』(삼중당, 1964) p.109.

7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술, 1986) p.468.

일원이었다. 만해는 이때 겪은 심미적 인식전환의 충격을 토로한 「고서화(古書畵)의 삼일(三日)」을 5회에 걸쳐 『매일신보』(1916.12.7~15)에 발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글은 만해가 썼지만, 그 글을 쓰게 한 사람은 석전이었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를 계기로 대인관계의 외연을 확장한 만해는 『정선강의 채근담』과 『유심』(1918.9~12 총3호)을 잇달아 간행하며 자신감을 얻고, 1910년대 지식인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의(1919.1.18~21)가 열리면서 국내외 동향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친교를 맺었던 동지들과 함께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하기로 결심하고 3·1독립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인은 항상 무와 같고 허와 같으며 덕이 풍부할지라도 자랑을 하지 않는다.[至人常若無若虛而感德多不矜不伐也]”<sup>8</sup>는 말처럼 세인의 앞에 잘 나서지 않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석전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작게는 만해의 삶과 문학, 크게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정신사적 성격을 살펴볼 때 그를 제외한 논의란 무엇인가 허전하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던가. 뿐인가. 여박암의 주인 오세창은 물론 방문 삼일 째 되던 날 고서화를 만해와 함께 배관했던 석전의 제자이자 조선광문회의 주인 최남선, 그리고 만해가 일본 유학 시절 사귀었던 고우 최린(1878~1958), 최린의 제자이자 이광수의

8 「정선강의 채근담」, 『한용운전집』 4(신구문화사, 1980) p.72. 이하 『전집』

동향후배인 기당 현상윤(1893~1950), 일본문법 학자이자 한글학자인 우정 임규(1867~1948), 해인사 승려 백용성(1864~1940)이 『유심』의 필자로 참여하고 이들이 다시 3·1독립운동의 주역이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날의 모임은 중인계층의 후예로서 문인취미를 가진 호고가(好古家)들과 불입성문(不入城門)의 하대와 멸시를 이겨내고 마침내 신분상승을 이룬 승려들이 모여 고서화를 배관하면서 아취와 풍정을 나눈 현대판 시사(詩社)라는 차원을 넘어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승속을 넘나들며 장(藏)과 경(經), 내와 외를 겸섭(兼涉)하고 시서화를 겸수한 학승이자 시승 석전 박한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용운의 주된 뜻은 은일하여 머무는 듯하며 변화를 꾀한다.(龍雲主意豹霧隱變)”, “그 마음은 매우 모질고 그 성정 또한 급하다.(其心大苦其情亦急)”<sup>9</sup>는 평가를 받았던 만해가 선승이자 시인 및 혁명가로 전신(轉身)할 때마다 그의 옆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러나 “있지 않으면서 있는 것 같은 사람(弗居而居者)”<sup>10</sup>과도 같았던 석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문단 이면사의 복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비록 만해와 처음

9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위의 책, pp.126~127.

10 「영호 중정스님의 대원암 강원」, 『미당서정주전집』(민음사, 1991) p.916. 한편 미당은 『영호대중사어록』(동국출판사, 1988) p.19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일찍이 석전 스님에 바치는 한시들 가운데 하나에서 이분을 구름 한 점까지 않은 보름달의 밝고 맑음에 비유하고 계시는 게 보이거니와”라면서 자신도 스승을 보름달에 비유하고 있다. 석전이 한국문학사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나 『유심』에 시문에 대한 깊은 조예가 돋보이는 세 편의 글을 기고하기까지만 살펴보는 아쉬움이 크지만, 석전이 만해를 비롯하여 문단 안팎의 제자들과 나눈 우정, 그 인간적인 경험들을 조명해낼 수 있는 인과관계의 안팎을 잘 살펴본다면, 맑고 깨끗한 보름달처럼 한국문학사라는 강물을 비춘 영혼의 도반을 다시 만나는 황홀한 기쁨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만해의 삶과 문학만을 늘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던 지난날의 편협한 안목을 반성하고, 역사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며 복합된 기억의 범주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 종설겸통(宗說兼通)의 석전과 일본유학승 만해

석전과 만해는 언제부터 우정을 쌓았을까. 두 사람은 1908년 3월 6일 원종종무원 설립총회가 열렸던 원흥사에서 처음 만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잠시 만해가 석전을 만날 때까지의 행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1905년 겨울 여러 우여곡절 끝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구사일생으로 귀국한 만해는 1906년 안변의 석왕사에서 본격적으로 승려생활을 시작한 듯하다.<sup>11</sup> 그러나 용맹정진을 거듭하고 있

---

11 후일담 형식의 수필마다 출가시점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와 그 심리적 요인

던 1906년 봄, 대륙을 향한 그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대는 한 통의 공문이 도착한다. 새로 설립한 명진학교에서 보낸 학생 파견 요청 공문(4월 10일자)이었다. 중법산 도내 수사찰인 석왕사에서 참선생활을 하면서도 더 큰 세계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던 만해는 곧 명진학교에 입학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만해 역시 일본에 건너가 나중에 조동종 관장이 되는 히로츠 세츠조(弘津說三)와 계합이 되어 그의 지우(知遇)를 받았다는 등 과시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을 뿐, 명진학교에서 수학한 사실이나 도일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2년 전(1907) 불교를 수련하기 위하여 동경에 가서 조동종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자(學資)를 계속할 수 없어 반년 만에 돌아왔다”<sup>12</sup>는 진술로 미루어볼 때, 그는 명진학교 보조과에서 1년 정도 단기과정을 수료하고, 조동종 승려들의 후원으로 1907년 봄에 도일했다가 연말 정도에 귀국했던 것 같다.

그런데 만해는 왜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경력인 일본유학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듯 처리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이면에는 일제가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황제를 퇴위(1907.7.20)시키고 정미7조약(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7.24)하면서 전국에서 항일의병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 도일했고, 또 후원의 주체

---

에 대해서는 출처, 『한용운과 그의 시대』(역락, 2010) pp.27~97. 참조.

12 「취조서 및 공소 공판기」, 『전집』 1, p.367.

였음이 분명한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1863~?)가 명성황후(1851~1895) 살해에 간여했고, 일진회를 조종하며 합방청원운동을 전개했던 조동종의 승려였다는 꺼림칙한 사실이 놓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만해 역시 일제가 자행하는 모든 간섭과 통제의 굴레 속에서 때늦은 각성을 도모했던 승려들의 한 명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임제종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보여준 일본의 정치적 침략과 일본불교의 침투에 대한 무감각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sup>13</sup>

귀국 후 동래 범어사에 머물고 있던 만해는 1908년 3월 6일 각도 사찰 대표자 52명이 동문(동대문) 밖 원흥사에 모여 원종설립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상경했다.”<sup>14</sup> 석전은 이날 회의에서 고등강사로 선출된다. 1899년에 이미 경남 산청의 대원사에서 강청(講淸)을 받고 진산(晋山)하여 학인 수백 명에게 경학을 강설했고, 이후 백양사·해인사·법주사·화엄사·범어사·석왕사에서 강설삼장(講說三藏)의 대법회를 성설(盛設)했던 종설겸통(宗說兼通)의 거물강백이었던 만큼 당연한 선출이었다. 백과 공선의 6대 법손인 석전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만해는 이미 석전에 대한 흥미의 뜻을 곡진하게 나타낸 시 한 수<sup>15</sup>를 보낸 적도 있다. 그는

13 최병헌, 「일제불교의 침투와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진산 한기두 박사 회갑기념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1993) p.458.

14 「나는 왜 중이 되었나」, 『전집』 1, p.412.

15 「영호화상에게 보내 면식이 없는 뜻을 나타내다 贈映湖和尚未相見」, 『전집』 1,

이날 그의 선출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의 인사를 올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중정으로 추대된 이회광(1862~1933)은 “조선불교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불교의 원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 일진회 회장 이용구(1868~1912)의 설득을 듣고 다케다 한시를 원종 고문으로 추대한다. 10월 10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다케다 한시는 한국의 정치와 불교 문제를 보고하면서 암약을 계속한다. 그런데 이회광은 이때 다케다 한시에게 원종 중무원에 관한 문제를 서신으로 두 번 문의했는데, 그 두 번째 서신의 서명자가 이회광, 김현암, 강대련, 김보륜, 김호응, 한용운, 황하담, 이훈허 등이었다고 한다.<sup>16</sup> 하긴 히로츠 세츠조의 지우를 받고 조동종대학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당시로서는 드물고 귀한 경력의 소유자였던 만해로서는 당연한 개입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어느새 불교계에서 주목받는 신진기예로 성장했던 것이다. 만해가 급거 상경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혁에 대한 그의 열망은 뜨거웠다.

석전과 만해는 이때부터 많은 대화를 나누며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쌓기 시작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만해는 위의 글에서 지리산에서 석전을 만나 불교개혁을 논의한 다음 총회에 참

---

p.102.

16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민족사, 1996) p.63.

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 비 그쳤던 무신년(1908) 어느 날 일본에 다녀온 만해스님이 이런저런 세상일 얘기할 적에 금파스님과 나 셋이 둘러앉아 개혁유신 토론했네.”<sup>17</sup>라는 석전의 회고로 미루어 이것은 만해의 착각임이 분명하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원종 설립총회에서 처음 만났다는 것, 강점 이후 원종과 조동종 연합맹약(1910.10.6) 사건으로 대립하기 전까지 이회광과 석전, 만해는 불교개혁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협조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석전은 만해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연한 자세로 평생토록 묵묵히 강단을 지켰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1910년에 석전과 만해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석전은 예상대로 백양사에서 승려들의 근대교육에 힘쓰고 있었으나, 만해는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하는 한편 승려취처에 관한 중추원헌의서(1910.3.17)와 건백서(1910.9)를 제출하면서 물의와 풍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때 석전이 “만해가 미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그러나 승려들의 결혼문제가 계율의 수호나 파계라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력신장을 위한 인구증산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애국계몽기 지식인들 사이

---

17 박한영, 「구름도 안개도 변하네雲變霧渝」, 『석전시초』(동명사, 1940) p.11. 한편 고은은 “1910년 8월, 만해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 속에 박한영을 찾아가 통곡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상관없는 작가적 상상일 뿐이다. 고은, 『한용운평전』(민음사, 1975) p.195.

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격렬하게 비난(?)했다는 석전이 만해와 함께 임제종운동을 함께 일으키고, 『조선불교유신론』을 감수하고 나아가 평생 우정을 나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sup>18</sup> 따라서 만해가 합방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건백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일제에 협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는 전후사정을 모르는 단견에 불과하다. 그는 국가는 없어졌지만 혼이 있는 한 민족은 영원하다고 믿으며 분노와 체념의 기묘한 공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래서 총독부에 장서를 제출<sup>19</sup>하는 굴욕을 감수하면서 일말의 기대 또한 품었던 수많은 조선인의 한 명이였다. 다만 헌의서와 건백서 제출이라는 정치적인 의견 표출 방식은 “일찍 어버이를 여의고 떠돌아다니다가 언제가 위봉산중(威鳳山中)에서 불법말씀을 듣고 기꺼이 거기에 마음이 쏠려 19살(1888)에 금산(錦山)스님을 따라 중이 되었다.”<sup>20</sup>고 하는 석전과 달리, 26살(1904)에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차선으로 선택한 자기발견의 형식이 자 일종의 정치적 선택으로 출가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큰 만해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해는 스스로 “내가 태어난 이 나라와 사회가 나를 중이 되지 아니치 못하게 하였던

18 출처, 『한용운과 그의 시대』, 위의 책, pp.136~141.

19 “일한병합 후로 조선인 중 정치에 관한 장서長書를 사내寺內 총독에게 제정하는 자가 일익환지日益還至하는 고로 경무 총감부에서는 각 경찰서에 신칙하여 장서 제정하는 자를 금지케 하였다더라. 「장서 제정자 금지」, 『매일신보』(1910.10.13)

20 정인보, 「석전상인소전」 『담원문록』 상, 위의 책 p.278.

가?”라고 반문했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는 외람된 질문(1992.6.29)에 한영숙(1934~) 여사도 “글쎄,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대답한 바 있다.<sup>21</sup>

거친 추정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개성과 운명은 자발적이고 전통적인 출가와 타율적이고 정치적인 출가 방식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석전이 출가했던 1888년도와 만해가 출가했던 1904년도의 불교계 상황은 엄연히 달랐다는 것이다. 일련종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勳, 1859~1912)가 승려들의 도성출입금지를 완화해 달라는 건백서를 김홍집 내각에게 제출(1895.2.12)하고 공식적으로 해금 칙허를 얻어 조선 승려들의 숙원을 풀어 주었던 것이 1895년 4월 25일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면 만해가 출가했던 1904년 무렵의 불교계는 더 이상 현실에서 분리된 낯고 초라한 공간이 아니라 근대적인 학습능력을 배우고 ‘의인 걸사’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무대이자 또 다른 의미의 세속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삶의 형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해가 석전을 영혼의 동반으로 경외했던 것은 반드시 세속나이나 법랍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을 듯하다. 정통적인 승려의 길을 걸었던 석전 앞에서 만해는 언젠가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을지 모른다.

---

21 이 증언의 함의에 대해서는 줄져, 『한용운과 그의 시대』, 위의 책, pp.20~45.

‘학식이 섬부(瞻富)’한 학승으로 장단(長湍)의 화산의숙(華山義塾)에 강사로 부임<sup>22</sup>했던 만해가 선문(禪門)과 속세의 물의를 뒤로 하고, 지리산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은 1910년 겨울이다. 당시 화엄사(신명학교), 선암사(승선학교), 송광사(보명학교), 대둔사(대흥학교), 백양사(광성의숙)에서는 합방 이전부터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근대적인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sup>23</sup> 그 가운데 석전이 개설한 광성의숙(廣成義塾)<sup>24</sup>의 활약상은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다. “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교육을 진흥시키는 자는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고 외쳤던 만해는 호남의 사찰들을 순례<sup>25</sup>하며 ‘선과괴 후견립’의 사자후를 토하며 오랜만에 행복할 수 있었다. 더구나 자신처럼 ‘시벽(詩癖)’과 ‘성병(聲病)’에 단단히 걸린 자<sup>26</sup>에게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는 백리해(百里奚)가 소를 기르는 것 같고 연설은 구방고(九方臯)가 말을 고르는 같았다.”<sup>27</sup>는 석전과 같은 연상의 도반이 옆에 있을 때 평정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삼장강설(三藏講說)을 주로 하는 외에 경사자집(經史子集)과 노장학설을 무불겸섭(無不兼涉)하는 이며 서

22 「사문신숙(沙門新塾)」, 『매일신보』(1910.11.27)

23 「호남 제사의 흥학」, 『매일신보』(1910.10.22)

24 「광성의숙의 진취」, 『매일신보』(1910.11.26)

25 「불계명성(佛界明星)」, 『매일신보』(1910.12.17)

26 「스스로 시벽을 웃다(自笑詩癖)」, 『전집』 1, p.119.

27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위의 책, p. 114.

법까지도 겸통하는 희대의 대종장(大宗匠)<sup>28</sup>이라는 석전의 박람강기(博覽強記)와 선기(禪機)를 빙자하여 난잡한 행동을 하는 승려들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지율엄정(持律嚴正)은 만해 같은 해방적 관심과 혁명적 정열의 소유자에게 정문금침(頂門金針)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만해는 호남의 삼대강백이 보여주는 선승으로서의 위의(威儀)와 한시에 대한 깊은 조예에서 서권기(書卷氣) 문자향(文字香)을 느끼면서 대기대용(大機大用)의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런 호연지기의 기쁨도 잠시, 이들은 일본 신문을 통해 이회광이 조동종과 굴욕적인 연합맹약을 체결했음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 3. 임제종운동의 허와 실

국권상실의 치욕이 며칠도 지나지 않은 1910년 9월, 13도 사찰 총회를 개최했던 이회광은 도일하여 히로츠 세츠조를 만나 연합에 관한 면담을 한다. 그러나 조동종에서는 한국불교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연합은 어렵다고 거절한다. 10월 6일, 이회광은 조동종과의 연합을 전제로 주지들에게 위임을 받은 것이지 부속에 관련된 위임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어렵사리 연합맹약에 서명한다. 그러나 말만 연합일 뿐 내용은 한

28 김영수, 「고 태고종교정 영호화상 행적」, 『석전문초』, 위의 책, p.73.

국불교 종단 설립을 일본의 일개 종파인 조동종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치욕적인 소식을 들었던 석전과 만해는 아직 정식인가도 받지 못한, 더구나 역사적인 중지도 아니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용하게 뭉쳤다는 뜻을 담고 있는 원종의 종무원 ‘주무’에 불과한 이회광이 불교계 대표를 자처하고 조동종과 굴욕적인 연합맹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조동종대학에서 수강하며 그들의 속내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자부했던 만해의 충격과 허탈감은 예상보다 컸으리라 생각된다. 그가 이회광의 음모를 분쇄하는 데 앞장선 것은 일본유학을 잠시나마 체험하면서 획득했던 정신적 제왕psychic king으로서의 자신감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이후 석전은 만해, 진진응, 김종래 등과 광주 증심사에서 총회를 소집(음력 10월 5일)하지만 성원미달로 무산된다.<sup>29</sup> 만해는 장단, 순천, 광주를 오르내리며 연합맹약을 무산시킬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집필 중이던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1910.12.8)한다.

1911년은 임제종운동과 함께 시작된다. 「구한 불교도를 내지 조동종에 예속하려는 사에 대하여」<sup>30</sup>에서 석전은 조선불교는 임제종을 종지로 삼고 있으므로 조동종과 연합할 수 없다는

29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위의 책, p.84.

30 『매일신보』(1911.1.1) 필자명은 금화산인金華山人 개석생介石生이라고 되어 있다.

의지를 처음으로 완곡하고도 단호하게 표명한다. 1월 6일, 증심사에서 특별총회가 개최된다. 사노 젠레이의 건백서 이후 일본승려들의 지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불교계의 의존심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회광의 전횡을 뒤늦게 깨달은 전라남도과 지리산 지역의 승려들이 집단적인 항의를 벌이는 가운데 석전과 만해는 임제종의 선두주자로 부상한다. 1월 15일, 송광사에서 임제종 설립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남쪽 임제종과 북쪽 원종의 대립은 본격화되고, 만해는 임제종 관장대리로 선출된다. 그러나 임제종운동은 “실상은 다 같은 선종이지만 조동은 그 계통이 다른 파이고 임제는 자기 집안이라고 하는 데에서 생겨난 반감으로 인한 것이고, 종지가 분명하지 않아 당파—남당 임제종과 북당 원종—사이에 암투가 일어났던 것”<sup>31</sup>이라는 설명처럼,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연로하다는 이유로 임제종 관장직을 수락하지 않았던 김경운(1852~1936)<sup>32</sup>이 1912년 각황사에서 성대한 법연(法筵)을 열고, 선교양종30본산연합사무소 제5회 주지총회에서 포교사로 임명(1916.1.2)되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1일, 영호남을 대표하는 승려 300여 명이 송광사에 모여 조선 임제종 종무원 발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런 가운데 『매일신보』에서 이회광이 조선

31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위의 책, p.84.

32 석전은 경운원기擎雲元奇에게 대교大敎를 배웠다. 선암사에는 함평태선涵溟太先(1824~1902) 경봉익운景鵬益運(1836~1915) 경운원기로 이어지는 삼대강백이 있었다.

원종의 대표라 자칭하고 조동종 종무원과 내약(內約)을 체결하였다고 비난하며 연합맹약 전문을 6개월 만에 보도하면서 임제종 진영은 고무된다. 그러나 총독부는 각 지방 사찰의 소속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찰령(1911.6.7)을 발표한다. 이어 사찰령 시행에 관한 처무 방법과 주지 취직 인가 신청서와 양식<sup>33</sup>마저 발표한다.

이런 외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12년에 들어오면서 임제종운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그러나 “호발(毫髮)도 정치에 무관한 지위”에 있겠다는 임제종 진영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는 신년인사차 총독 관저를 예방한 범어사의 오성월(1866~1943)과 통도사의 김구하(1872~1965)에게 사찰령 취지를 설명하면서 “조선의 승려된 자는 전의(專意)로 교학(敎學)의 연구에 진력하라고 유계(諭誡)”한다.<sup>34</sup> 이 운동의 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 무렵 이회광은 유명무실했던 『원종』(김지순 1910.1~2 총2호)을 폐간하고 『조선불교월보』(권상로 1912.2~1913.8 총19호)<sup>35</sup>를 발행하는 한편 사립 호동학교를 지원하면서 교단 내의 권력을 강화한다. 1912년 5월 26일, 만해는 마침내 신축한 임제종 중앙포교당<sup>36</sup> 강단에 올

33 「사찰령 시행방법」, 『매일신보』(1911.9.10) 「총독부 공문」, 『매일신보』(1911.9.13) 참조.

34 「승려 선정에 감읍」, 『매일신보』(1912.2.11)

35 「종무원 월보 출판」, 『매일신보』(1912.3.10)

36 「포교구 현상 일람표」, 『조선불교월보』19(1913.8.25)

라 취지 설명을 한다. 그러나 그는 사찰령이라는 현실을 거부할 수 없었던 북쪽 원종과 남쪽 임제종의 주지들이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을 때 홀로 만장의 기염을 토해던, 아니 아직 비정한 식민지 권력의 맨 얼굴을 보지 못한 혈기방장(血氣方壯)한 개혁승에 불과했다.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던 각황사(박동=수송동 12통 1호)와 임제종 중앙포교당(사동=인사동 28통 6호)의 대치상황은 한 달도 안 된 6월 21일 너무도 싱겁게 종결된다.

당시 조선의 불교를 전통적인 종지에 의해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던 총독부는 조선불교는 전통적으로 선교겸수(禪教兼修)를 종지로 삼아 왔다<sup>37</sup>고 선전했다. 이는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教諭)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1878~1967)의 「조선 불교 종지의 변천」<sup>38</sup>에서 확인된다. 총독부의 의중을 잘 꿰고 있던 이회광은 임제종 중앙포교당 개교식 거행 이틀 후인 5월 28일, 11본산 주지들과 모여 4개의 안건—사법과 사찰령 시행 규칙 준봉, 사법 제정, 본원 과거 관계 의결, 본원 미래 방침 논정—을 결정하고, 6월 7일 각황사에서 30본산 주지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첩을 발송한다. 그리고 석전이 백양사 주지대리로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던 6월 1일, 만해는 관청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죄목으로 북부경찰서(종로경찰서)로 긴급체포<sup>39</sup>를 당

37 강석주 박경훈, 『한국근세불교백년』(민족사, 2002) p.51.

38 『매일신보』(1914.11.7)

39 「검사국으로 압송」, 『매일신보』(1912.6.4)과 「한용운 사실의 후보後報」, 『매일

한다. 6월 17일, 남북을 망라한 주지 17명과 석전을 포함한 7명의 주지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30본산회의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남북의 승려들은 범어사 주지 오성월의 발의와 금룡사 주지 김혜옹의 동의라는 형식을 빌려 ‘본원 과거의 건’ 즉 남북 갈등을 해소<sup>40</sup>한다. 6월 20일, 원종 종무원 명칭은 조선선교양종 각본산 주지회의원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다음날 경성부는 원종(이회광, 강대련)과 임제종(한용운) 양측을 소환하여 각 종무원의 현판을 철거하라고 명령한다.<sup>41</sup>

1912년 6월 21일은 석전과 만해의 불교개혁 의지가 냉혹한 현실에 의해 부정되는 순간이며, 한국 근대불교의 태생적 한계가 전면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임제종 진영은 개종 역조(改宗易祖)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투쟁했지만, 또 다른 이름의 원종종무원인 조선선교양종종무원에 흡수통합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교계는 도성 출입 허용 문제에 이어 종지마저 타율적인 힘에 의하여 해소, 아니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

신보』(1912.6.5) 참조

40 「회의원 회의전말」, 『조선불교월보』 6(1912.7.25) pp.57~77.

41 「문폐철거」, 『조선불교월보』 6(1912.7.25) p.78.

#### 4. 소리 없는 혁명, 교육자의 길

1912년 7월 22일, 석전이 이회광과 화해하면서 남북의 갈등은 각황사라는 현실로 수렴된다. 이회광은 석전을 찾아와 설립 예정인 고등불교강숙의 강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석전은 이때부터 『조선불교월보』에 많은 글을 발표한다. 어찌면 만해는 석전의 이런 결정을 못내 섭섭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통하지 않고 진실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절대선에 대한 요구가 크면 클수록 세상은 유일한 존재의 장이자 타락한 현실로 다가온다. 진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거부하지만 현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설이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의 고통과 중생이 다 나올 때까지 병을 앓는 유마의 고통은 둘이 아니다. 평소 교학의 정립을 주장했던 석전은 종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을 간절히 희망했다. 그래서 이런 제의를 수락했을 터인데 이것을 타협이고 변절이라고 비난한다면, 묵언수행을 하며 산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선승들의 행위는 현실도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석전이 이렇게 강단, 아니 소리 없는 혁명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1912년 가을, 만해는 임제종운동이 무산되자 깊은 실의에 빠져 만주로 떠난 것 같다. 그는 이때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학교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던 일송 김동삼(1878~1937)을 만나 많은 논의를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무모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과 현실에 대한 절망감은 그를 “무슨 이상한 불안과 감격과 희망 속에 싸여 있던” 만주로 이끌었지만, 낯선 땅에서 그의 존재감이란 예상보다 훨씬 미비하고 불온한 것이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 다시 만주에서도 정탐으로 오인을 받고 저격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체머리를 하게 된다.

식민지 현실은 이처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체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경술년 8월 국치의 슬픔을 참지 못하고 중국 동북삼성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으로 만해의 망명생활의 첫걸음이기도 하였다.”<sup>42</sup>처럼 미화된 연보나 이면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건백서 제출 문제는 그 단적인 증거다. 이는 승자나 패자와 같은 극적인 삶에는 관대하지만 만해 역시 역사를 만들었던 보통 사람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우리의 과거청산에 대한 강박증을 보여주는 사례인지 모른다. 만해는 오랜 세월 억압되었다가 타력으로 근대화에 동참할 수 있었던 불교계의 조급하고 경솔한 체제지향성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한 명의 승려였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만해는 문화기억으로 포장될 가능성이 크다. 석전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역사란 포괄적인 기억문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1913년 1월 9일, 30본산 주지들은 유점사 주지 김금담을 원

---

42 박노준 인권환, 『한용운연구』(통문관, 1960) p.26.

장으로 선출한다. 4월에는 오성월과 백용성이 대선사로 승격하고, 초파일에는 진진응과 도진호가 전주의 청수정에 마련한 조선 선종 호남 포교소에서 설법을 한다. 불교계에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다. 석전이 학림(學林)에서 교편을 잡으며 치문(緇門)의 경책(警策)을 부지런히 발표하고 있던 1913년 봄에 만주에서 돌아와 심신을 수습한 만해는 서랍 속에 묵혀 놓았던 원고를 꺼내 석전에게 감수를 받아 『조선불교유신론』을 간행하고, 다시 통도사로 내려가 『불교대전』을 편찬하기 위한 자료조사에 착수한다. 석전은 『조선불교유신론』에 대한 교내외의 뜨거운 관심<sup>43</sup>에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다.

1914년 1월 5일, 김금담이 사임하고 이회광이 다시 원장으로 복귀한다. 1월 13일, 30본산주지들은 30본산 주지회의소(원흥사)에 대교과 이상의 과정을 가르치고 포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불교강숙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이회광은 고등불교강숙의 강사와 중앙포교당 포교사로 박한영과 진진응을 임명<sup>44</sup>한다. 석전은 고등불교강숙 강사와 『해동불보』 사장을 겸임하게 된다. 만해가 다시 경성에 올라온 것은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 광고가 『매일신보』 지면을 대대적으로 장식하고 있던

43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이나 서평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천년 적습(積習)을 통벽(痛關)하고 팔면영롱(八面玲瓏)의 신교기(新敎旗)를 양揚한 쾌서(快書)” 운운하는 광고가 『매일신보』(1914.4.11~28일)에 실렸다. 교육자의 길을 걸었던 석전과 달리 만해는 출판저널리즘을 이용하여 불교대중화에 앞장섰던 것이다.

44 「조선선교양종 30본산주지 회의소 제3회 총회」, 『해동불보』 4(1914.2.20)

191년 4월이다. 그런데 신문관은 왜 전년도에 나온 『조선불교 유신론』을 『불교대전』과 함께 광고하고 있는 것일까? “일면으로 막대한 찬상(讚賞)을 득하고 일면으로 무한한 타격을 수(受)했다.”는 대목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타격’이란 건백서 제출에 대한 세간의 비난 여론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혹한 검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만해는 두 권의 저서를 간행하면서 대중들의 뇌리에 불교계의 ‘대선사’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반향에 만족하지 않았던 만해는 불교청년 수양단체(불교동맹회)를 조직하다가 다시 북부경찰서 고등계로 소환된다.<sup>45</sup> 정교분립을 지향하는 단체의 설립을 극력 반대했던 이회광은 『해동불보』도 종간(1914.6.20)하고, 석전과 만해를 따르는 학생들이 많던 고등불교강숙마저 폐교한다. 석전과 만해는 아직 이회광의 적수가 아니었다. 8월 10일, 이회광은 승속이 연합하여 불교를 진흥한다는 취지로 불교진흥회 발기회를 개최한다.<sup>46</sup> 11월 22일 불교진흥회를 설립(인가 11.28)하고, 11월 29일에는 각황사 개축식을 성대하게 거행한다.<sup>47</sup> 조동종 별원과 똑같은 일본식 건축 양식의 사찰을 짓는다고 하여 세상의 여론은 좋지 않았으나, 이회광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1915년 3월 31일, 선교양종30본산연합사무소 제4회 정기총회에서 용주사 주지 강대련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중앙

45 「동맹회도 금지」, 『매일신보』(1914.9.5)

46 「불교진흥회회록」, 『불교진흥회월보』2(1915.4.15)

47 『京城府史』3卷(京城府, 1935) p.824.

학림의 위치(경성부 창신동 30본산주지회의소)와 교사진용 및 각본 말사의 등급을 결정한다. 강대련은 30본산연합사무소를 각황사로 옮기고,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흥사를 경성부청에 매각한다. 위원장에서 밀려난 이회광은 『불교진흥회월보』(이능화 1915.3~1915.12 총9호)를 간행하고 매일신보사 사장 아베 요시이에(阿部充家, 1862~1936)의 후원으로 7월 3일 장충단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개최한다. 상현 이능화(1869~1945)의 제자로 거사이자 중국문학자이며 소설가였던 백화 양건식은 이 잡지를 편집하고 여기에 문제적인 소설과 논설 등을 발표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문학사의 그늘에서 망각된다.<sup>48</sup> 중앙학림을 설립하면서 외부지원이 필요했던 불교계에서 이완용(1858~1926)을 후원자로 내세운 불교옹호회(인가 1917.7.20)를 설립하자 거사불교 운동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물론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그것이 주된 망각의 이유였으리라 생각된다. 이해 10월, 중앙학림은 총독부로부터 종로구 송일동 1번지(구 북궐 왕묘)를 차용하고, ‘총준학인(聰俊學人)’을 모집하고 강의를 시작한다. 하야카와 게이조(早川敬藏)가 국어(일본어)와 물리, 석전이 불학(佛學)을, 이명철이 산술을 담당했다. 학장은 강대련이었고 학감은 김보륜이었다.<sup>49</sup> 11월 5일 마침내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종립학교 중앙학림의 인가가 나온다. 예과 1년, 본과 3년의 명실

48 출처, 『한국근대문학지성사』(깊은샘, 1911) 참조

49 「중앙학림에 호명거(好名學) 강사」, 『불교진흥회월보』 8(1915.10.15)

상부한 불교대학이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3학기제였고 수신, 종승(宗乘), 여승(餘乘), 종교학 및 철학, 포교법, 국어, 한문, 보조과를 총 30시간에 걸쳐 강의했다. 오늘날 동국대학교의 전신이다.

한편 중앙학림이 설립되고 거사불교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1915년에 만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불교동맹회 설립이 무산된 후 석전이 있던 구암사에서 『채근담』을 번역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정선강의 채근담』의 「출판허가증」과 「서」로 확인된다. 「출판허가증」을 보면 “지령(指令) 제 254호 전라북도 순창군 구암사 저작 겸 발행자 한용운 다이쇼(大正) 4년(1915) 6월 22일 부원(附願) 정선강의 채근담의 출판을 허가함 다이쇼 4년 7월 2일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郎)”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서」는 1915년 6월 20일에 탈고했음을 보여준다.<sup>50</sup>

그러면 당시 이능화나 양건식 같은 지식인들이 왜 거사불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우선 타종교와 경쟁하고 있던 불교계에서는 근대적 학습능력을 갖춘 세속적 문화 엘리트의 확보가 절실했다. 이는 종립학교의 설립, 잡지간행, 유학승과 견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반면 국내에서 지적교양을 쌓고 시대와 사회의 문제들에 본질적인 관심을 보이며 계급으로의 주체성을 인식했고, 불교를 학문의 대상과 ‘지적

---

50 『전집』 4, 속표지 참조.

활동'의 하나로 보았던 국내 지식인<sup>51</sup>들은 불교에서 수양주의와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ism)를 이끌어냈다. 전자는 수양을 통해 참된 나를 발견하고 실력을 기르자는 주장이고, 후자는 서양의 전통문화에 대해 고유한 문화전통의 우월성을 확인하자는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신분상승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잔존하는 반상의 구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인계층 출신들이 이른바 '신사(紳士)'로 거사불교운동에 참여했다.<sup>52</sup> 계급타파와 자아발견이란 승속의 차원을 넘어 모두에게 절실한 근대화의 선행조건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등장한 1910년대의 민족주의 진영의 지식인들은 상리동(삼각동)에 위치한 조선광문회와 박동(수송동)의 불교진흥회 그리고 사동(인사동)의 조선선종중앙포교당에 몰려들었다. 특히 조선광문회가 있던 광교 부근은 기술직 중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곳이며, 최남선이 중인계층 출신이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상리동에서 박동 및 사동으로 이어지는 경성의 중부 일대는 애국계몽운동과 국학운동에 종사했던 지식인들이 모였던 문화 1번지이자 지성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활약했던 '문사' '신

51 줄저, 『한국근대문학지성사』, 위의 책, p.23. 조선광문회와 불교진흥회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중인계층을 포함한 당시 지식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52 불교진흥회에서 거사로 활약한 위암 장지연(1864~1921)과 서은 장홍식, 추진 김홍조가 『대동시선』(1917)의 편찬에 관여한 것은 시사적이다. 정옥자, 『조선 후기 중인문화연구』(일지사, 2003) p.103.

사’ 또는 국내 지식인들의 ‘문학’은 만해를 제외하고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이때 ‘문사’란 근대적 의미의 문인이나 작가가 아니며, ‘문학’ 또한 문사철을 아우르는 개념이지 수입된 개념으로서의 문학literature은 아니다. 이들은 3·1독립운동 이후 대거 귀국하는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밀려나는 경계인이었고, 정교분립의 가능성이 차단된 불교진흥회에서 활약했다고 하여 저평가되거나 무시되었다. 또 문체개혁에 힘쓰지 않고 전통적 문학을 고집했던 것도 평가절하와 문학사적 망각의 한 원인이었음에 틀림없다. 만해조차 『유심』(1918)을 창간할 때 비로소 한글체로 된 초기시를 발표했다. 석전이 한국문학사에서 ‘백의정승’처럼 거론되는 이유의 일부가 이 부근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석전과 달리 종교의 세속화secularization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폭넓은 대인관계를 하지 못해 암중모색하던 만해가 그의 배려로 지식인 사회의 한복판에 설 수 있었으니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석전은 조선광문회와 불교진흥회의 주역들과 거침없이 통교하며 그들의 답답한 가슴을 환히 밝혀 주는 맑고 깨끗한 보름달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 5. 산벽시사(瑯碧詩社)의 주인과 서화배척당 만해

석전이 김기우, 만해와 함께 의암 손병희(1861~1922)의 지낭(智

囊)<sup>53</sup>이자 서예가로 유명한 위창 오세창의 여박암을 방문한 것은 1916년 11월 26일이다. 고서화의 주인이 “목록을 정리출판하여 서화 동호자의 참고자료에 공(供)하리라더라.”<sup>54</sup>는 기사를 보고 만해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위창의 오랜 친구인 김기우를 넣어 그 뜻을 전했다는 것 같다. 석전은 이미 오세창, 김기우, 최남선, 김노석 등과 함께 산벽시사(珊碧詩社)를 주도하고 있었다.

동인이 무려 16명이나 되었던 산벽시사에는 오세창, 최남선은 물론 우당 윤희구(1867~1926), 우향 정대유(1852~1927), 관제 이도영(1885~1933), 성당 김돈희(1871~1937), 춘곡 고희동(1886~1965), 석정 안중원(1874~1951) 등 시서화의 대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sup>55</sup>

만해는 앞에서 말했듯이 사흘 내내 1,291인의 수적(手迹)을 열광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고 이때의 감동을 『매일신보』에 「고서화의 삼일」로 연재했는데, 그 서두에서 자신을 평소 고서화를 “추초황원(秋草荒原)의 백골로 남은 고인의 잔영(殘影)”으로 보는 ‘서화 배척당’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겸양이기 전에 사실인 듯하다. 그는 「불가에서

53 현상윤, 「삼일운동의 회상」, 『기당 현상윤전집』 4(나남, 2008), p.273.

54 「별견서화총瞥見書畫叢」, 『매일신보』(1915.1.13)

55 심삼진, 『석전 박한영의 시문학론』(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1987) p.8. 육교시사六橋詩社의 계보를 잇는 시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학연구』, 위의 책, pp.116~142. 참조.

숭배하는 소회」(『조선불교유신론』)에서 물질은 진리의 가상이며, 소회(塑繪, 불상이나 불화)는 물질의 가상이므로 진리의 처지에서 바라보면 ‘거짓 모습의 거짓 모습(假相之假相)’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본질적으로 감각적인 것을 억제하고 차단하면서 심신 탈락(心身脫落)을 자수자증(自修自證)하는 선승다운 관점이다. 해방적 관심의 소유자에게 개념에 의거하지 않고 모든 관심을 떠난 객관적 미 또는 예술이란 사치며 여기(餘技)였는지 모른다. “가리어 혼란이 없어야 하겠고(可擇而不可亂) 간략하여 번잡하지 않아야 하겠다.(可簡而不可煩)” 이와 같이 효용론적 관점과 윤리적이고 감계적인 관점으로 예술을 보았으니 스스로 서화 배척당이라고 할 만하다.

석전은 그래서 늘 강박했던 만해가 안쓰러웠는지 모른다. 그는 “부정(否定)의 독(積)에 온장(蘊藏)된” 자신의 예술관을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산(他山)의 석’에 충격을 받아 “미에 대한 사고의 완옥(頑玉)”이 깨지기를 바라는 만해의 갈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서화 겸수의 문인취미가 결코 호사가들의 도락이나 여흥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다행히 만해는 과거에 대한 비탄과 애증 속에 전통단절론으로 기울었던 이광수나 현상윤 등 일본 유학생들과 달리 과거에 대한 긍지와 비감 속에서 민족문화를 재창출하는 원천으로 전통을 긍정하는 신전통주의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다. 만해는 이후 “물질문명은 인지개발의 과도시대에 면할 수 없는 점진적

현상일 뿐 구경의 문명은 아니다.”<sup>56</sup>라고 선언하고 “불립문자가 견성성불의 한 길이라면 불리문자(不離文字)는 성(性)의 원성(圓成)인 동시에 도생(度生)의 대용이 되는 것”<sup>57</sup>이라며 법신과 응화의 화엄적 세계관에 입각한 예술관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모두 이 날의 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긴 중론적 세계관으로 보면 흥망성쇠란 ‘조화소아(造化小兒)의 괴롱被弄’에 불과하다. 석전이 제7축을 다 보고 공폭(空幅)이 나왔을 때 “최선의 진화(眞畫)는 차(此)에 재(在)하도다. 인우쌍망(人牛雙忘)의 경(境)이 차가 아니냐?”며 빙그레 웃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식을 지키기를 극진히 했다가 그 법식을 떠남에 귀착하는 것(有法之極歸於無法)”이 그림의 도라는 무비법(無非法)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잘 사는 저들이 가난한 조선을 빼앗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꽃은 피면서 지고, 지면서 핀다. 제행무상이다.

이와 같이 달을 그리기 위해 구름을 그렸던 홍운탁월(烘雲拓月)의 깊은 배려를 만해에게 베풀었던 석전은 이튿날 참석하지 못한다는 전갈을 만해에게 보낸다. 이미 동인들과 수차례나 고서화를 감상했던 터였고, 전투적인 성격의 만해가 중도에 포기할 리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리라. 만해는 김남전(1868~1936)과 강도봉, 광문회에 머물고 있던 김노석 노인과 함께 총23축

56 「조선청년과 수양」, 『유심』1(1918.9), p.6.

57 「문자文字 비문자非文字」, 『전집』2, p.304.

으로 된 『근역서회』를 배관한다. 김남전은 “그대는 시와 문장에 홀로 뛰어나(詩文君獨出) 당송 삼부자 소순, 소식, 소철도 물러서나니(唐宋三舍退) 그의 바람 밑으로 따라가려고(欲從下風去) 말을 내면 드디어 수갑 채이네(發語遂桎械)”<sup>58</sup>라는 시를 석전에 게 보냈던 선승이자 명필가이기도 하다. 그는 1921년 오성월, 김석두, 강도봉 등과 함께 한국불교의 정맥을 이은 선종 중앙기관 선학원을 창간했다.

한편 「고서화의 삼일」에서 거론된 인물은 총46명인데, 만해는 주로 정몽주(1337~1392), 성삼문(1418~1456), 이원익(1547~1634), 박태보(1654~1685), 최경회(1532~1593), 임경업(1594~1646) 등의 글을 보면서 역사적 교훈과 그에 따른 감개를 토로하고 있다. 문이재도(文以載道)의 전통에 충실했던 만해는 시취(詩趣)와 여운을 느끼면서도 송익필(1534~1599)과 허난설헌(1563~1589)의 시, 신사임당(1504~1551)의 초충도(草蟲圖), 순조 시대 기생인 소미(小眉)의 난(蘭), 박창규(1783~?)의 낙화(烙畵), 이산해(1539~1609)의 한국도(寒菊圖), 추사 김정희의 서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간다. “유시로부터 서화를 학습한 사는 절무(絶無)하고 타인에게도 권장치 않을 뿐 아니라 서화를 학습하는 인을 대함에 왕왕 비난한 사(事)도 유(有)하며, 서화의 미오(美惡)를 물문하고 일폭도 장치(藏置)한 사(事)가 무(無)하도다.”는 고백이 겸양만은 아닌 듯하다.

58 「석전 박한영 씨의 내장산 상설시 30구에 답함 10절次石顛朴漢永氏內藏山賞雪三十句十節」, 강석주 편, 『남전선사문집』(인물연구소, 1978) p.123.

방문 사흘째인 11월 28일, 혼자 길을 나섰던 만해는 여박암에서 '조선 제일류의 호고가'인 최남선과 최성우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여기서 우리는 육당과 만해가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의 광고와 총판 때문에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을 알게 된다. 만해는 1919년에 취조를 받을 때 육당을 5, 6년 전 즉 1913, 4년부터 안다고 말한 바 있다.<sup>59</sup> 만해가 이듬해에 『정선강의 채근담』을 신문관에서 출간하고, 육당이 『유심』에 원고를 기고하며 나아가 만해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 되는 계기는 이때 마련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육당 역시 “스님은 몇몇 동지와 종단을 바로잡고자 하실 적에 나 역시 미비한 힘으로나마 스님을 도와 조그마한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한다.”<sup>60</sup> 고 하면서 석전과의 인연이 임제종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1912년을 전후로 시작되었음을 회고한 바 있다. 이날 여박암에서 고서화를 배관했던 사람들이 『유심』의 주요필자가 되고 3·1독립운동의 주역이 되는 걸 감안하면 만해와 육당의 라이벌 관계 운운은 호사가들의 지나친 말 만들기인지 모른다.<sup>61</sup>

육당이 조선광문회를 설립한 것은 강제병합 두 달 뒤였다. 전통은 부정되고, 근대화는 훼손되고 타락한 방식으로 전개되

59 市川正明 編, 『三一運動』 1(原書房, 1984) p.388. “五, 六年前京城で知合となり其後親しく交際して居ります.”라고 답변하고 있다.

60 최남선, 『석전시초』, 위의 책, p.1.

61 만해의 공약삼장 추가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만해는 공약삼장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줄지, 『한용운과 그의 시대』, 위의 책, pp.337~370. 참조.

고 있었다. 1910년 10월 29일, 최남선은 고문헌을 보존하고 고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광문회 설립을 계획하고 간행물 예약금 모집 허가를 경무총감부에 청원했다. 조선광문회에는 위암 장지연과 함께 『황성신문』에서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렀던 유근(1861~1921)이 머물며 『신자전』을 편집했고, 대중교 2대교주 김교헌(1868~1923)과 우정 임규가 상주하다시피 지내고 있었다. 또 한샘 주시경(1876~1914), 백연 김두봉(1890~1961), 애류 권덕규(1890~1950), 효창 한징(1887~1944), 환산 이운재(1888~1943) 등 국어학자와 소림 조석진(1853~1920), 심전 안중식(1861~1919), 춘곡 고희동 등 화가는 물론 인촌 김성수(1891~1955), 도산 안창호(1878~1938), 고하 송진우, 천풍 심우섭(1890~?), 하몽 이상협(1893~1957), 민세 안재홍(1891~1965), 춘월 이광수, 순성 진학문(1890~?), 고우 최린(1878~1958) 등 민족지사와 언론인과 문사들<sup>62</sup>이 모여 민족의 장래를 의논하고 토론했다. 『일본풍경론』을 쓴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 1863~1927)도 경성에 오면 광문회부터 찾을 정도였다. 뿐인가. 이능화와 양건식은 물론 권상로, 김구하 등 석전과 가까운 승려들도 수시로 출입하며 학문과 시국을 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 익숙하지 않았던 만해는 석전의 매개로 불교계에 국한되었던 대인관계의 외연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교계에 더욱 분노를 느끼

62 「현대명가 시문서화 만자천홍萬紫千紅」, 『청춘』 14(1918.6.12)의 필자명단을 보면 더욱 자세하다.

고 있던, 해방적 관심의 소유자 만해였기에 이 날의 모임은 인생의 한 전환점으로 다가온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초월하고 절망하지 않던가.

일행은 『근역서회 속』을 보기 시작한다. 추연한 감개에 젖어 이삼만(1770~1845)의 글과 “섬교를 극(極)하여 기(其) 정세(精細)함을 탄미치 아니할 수 없”는 서홍순(1798~?)의 태서(苔書)가 있는 제2축을 보고, 마지막으로 제3축의 민영익(1860~1914)의 글을 보니 시계는 오후 4시 반을 가리키고 있다. 만해는 마침내 『근역서회』 35축(1,100인의 서)과 『근역화회』 7축(191인의 250화)을 합친 총 1,291인의 수적을 단 3일만에 열광적으로 전부 배관하는 행운을 누렸던 것이다.

이후 위창은 1917년 봄 이 책의 편술을 완료하고 『근역서화사』로 상재했다가 1928년에는 『근역서화징(權域書畫徵)』으로 제명을 바꿔 출간한다. 『근역서화징』은 『대동시선』(1917), 위암의 『일사유사』(1918)와 함께 시서화의 문인취미와 문사의 여맥은 이미 양반 사대부에서 중인층으로 확산되었고 그들이 지식인 사회의 우이를 잡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일본에 건너갔던 유학생들은 이런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행히 성숙한 관점을 확보한 나이에 일본을 다녀왔고 파란만장한 일들을 체험했던 만해는 사전상승(師傳相承)과 학예일치의 전통을 간직한 여박암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고미술은 결코 고인의 잔영이 아니라 민족의 창조적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전통의 원천이며, 정신문명은 물질문명의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피(물질문명)를 피로 씻는 것에 불과한 실력양성론의 한계를 깨닫고, 정신문명의 우월성과 주체 의식, 능동적 의지와 실천력의 강화로 요약되는 전투적 수양주의를 내세우면서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때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서화와의 만남, 그것은 낙막도, 유한도, 감상도, 우연도 아니다. 일세의 기원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침묵하고 있는 ‘님’과의 극히 짧고도 긴 만남이었다. 아니, 역사와의 대면이었다. 이런 심미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석전이 『매일신보』에 실린 다음과 같은 만해의 고백을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리라 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력의 소산만은 아닌 듯하다

여는 문聞하였노라. 기국其國의 고물古物은 기其 국민의 정신적 생명의 근根이라 하더라. 여는 차此 고서화를 견見할 시時에 대응변의 고동鼓動 연설을 청聽함보다도 대문호의 애정소설을 독讀함보다도 하何에서 득得함보다 더 큰 자극을 수受하였노라.

## 6. 시선일치(詩禪一致)의 시학, 그 투명한 유산의 계보

1917년 1월, 김구하가 30본산 주지회회의의 결의로 강대련에 이어 제3대 30본산 위원장이 된다. 3월에는 『조선불교총보』(이

능화 1917.3~1920.4 총21호)가 간행된다. 9월 24일, 일본불교시찰단이 메이지(明治) 일왕의 능에 참배하고 ‘천황의 권속(眷屬)인 우리들’로 시작되는 축문 봉독을 시작으로 친일적인 행보를 보여 주고 돌아왔을 때 석전은 『정선강의 채근담』의 「서언」에 “육미(肉味)를 잊고 허근(虛根)으로 돌아감이 여기에 있을 뿐이다. 여기에 있을 뿐이다.”라고 쓰면서 기쁨을 표시했다. 만해가 『채근담』의 동양적 은일의 정신을 『조선불교유신론』에서 표명했던 자유주의와 전투주의를 내포하는 행동적 수양주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918년에 들어오면 석전과 만해의 근황을 보도하는 기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음을 『유심』의 창간을 알리는 광고기사(『매일신보』1918.8.31)는 잘 보여 준다. 석전은 여기에 세 편의 글을 기고하면서 문학적 출발을 했던 만해가 명심해야 할 시인의 자세와 시작법을 알려주고 있다.

먼저 「우담발화재현어세」(1호)<sup>63</sup>는 정신수양을 통한 각성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실천이 이 잡지의 간행목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담발화Udumbara는 현실의 꽃이 아니고 일체법의 최정각(유심)을 상징하는 꽃인데 이 꽃은 조선조 이후 시

63 『유심』에서 「우담발화재현어세」의 필자는 우산두타(寓山頭陀)로 나와 있지만 광고에는 박한영으로 적혀 있다. 또한 「야호선野狐禪과 도아불屠兒佛」, 『청춘』14(1918.6)에서 우산(寓山) 석정호(釋鼎鎬)라고 쓰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산두타는 박한영의 필명임이 분명하다.

들다가 ‘난데없는 참천형극(參天荊棘)’을 맞아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이제 유심사가 출현했으니 이 꽃은 다시 피어나리라는 것이다. 석전은 만해가 1912년 만주 굴라재 고개에서 충격을 받고 생과 사의 고비를 넘나들 때 관세음보살에게 받았다는 신비의 꽃을 우담발화로 해석한 셈이다. 석전의 ‘우담발화’와 만해의 ‘송이 큰 꽃나무’와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매화’(「처음에 씬»)는 없음으로 있음을 보여주는 깨달음이자 일체법의 최정각 아니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는 ‘황금의 꽃’이다.

「유심은 즉 금강산이 아닌가」는 시서화에 대한 탁발한 안목과 명산대천을 유람하면서 산을 보는 법과 글을 보는 법이 다르지 않음을 체득한 그의 도도한 필력을 잘 보여준다. 석전은 사물은 스스로 자성(自性)일 뿐이지만 해석은 구구한데, 이는 금강산은 하나지만 탐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감회와 풍정이 각자 달라 그런 것과 같다고 하면서 불자, 도사, 유학자, 시인, 과학자, 화가들의 소견을 예로 든다. 이때 그의 시격(詩格)을 논하는 안목은 눈부시다. 이어 천불동에서 혈성루, 중향성을 거쳐 사선정과 해금강으로 이어지는 금강산의 절경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묘사하는데, 이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탐승하며 육당에게 새로운 역사의식을 일깨워 주었던 그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경지로 생각된다.

석전은 육당과 함께 금강산(1924.10), 지리산(1925.3), 백두산(1926.7)을 탐승한 바 있다. 육당이 『심춘순례』(1926)의 첫머리에 “이 작은 글을 석전대사께 드리나이다.”라고 헌사를 붙인 것

은 결코 지나친 겸손은 아니다. 위당도 “스님을 따라 국내 명승을 노닐 적마다 산천풍토며 인물로부터 농공상관, 가요, 패관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소에 익숙한 듯하니 제 고장에 사는 사람으로 아득히 미치지 못한다고 여길 정도”라고 감탄했고, 산강 변영만 역시 “지금 산문(山門)에서 그와 짝할 이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의 시는 우아하고도 청려하고 성정은 호탕하여 승속과 현우(賢愚)를 불문하고 크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 오래 지나도 처음과 같다.”<sup>64</sup>고 칭송했다.

이렇듯 도도한 문세(文勢)를 보여주며 써내려오던 석전은 글허리에서 “유심이란 석가세존이 오도한 당일에 선언한 삼계유심소조(三界惟心所造)일 뿐이며, 말과 글로 미칠 수 없는 도리다. 그러나 말과 글을 거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치라면 자신은 유심을 금강산이라고 하겠다.”고 마무리를 짓는다. 그는 「우담발화재현어세」에서도 “유심이라 하면 언문(言文)으로 가급(可及)지 못할 도리니라. 그렇지만은 또한 언문을 불거(不拒)하리라.”고 다짐한 바 있다. 만해 역시 앞에서 보았듯이 불립문자와 불리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제 두 사람은 말의 빌림(依言)과 말의 떠남(離言)에서 자유로운 경지에서 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백아(兪伯牙)와 종자기(鍾子期)의 우정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유심을 금강산 비로봉 위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규정했던 석전은 언어를 빌리는 순간, 깨달음의

64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변영만전집』 상(대동문화연구원, 2006) p.160.

오묘한 경지가 사라지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말머리를 돌려 백묘화(白描畵)의 대가 용면(龍眠)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이 금강산을 그렸다면 다음과 같았을 터 적어도 유심을 논하는 글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인용은 생략하지만, 석전의 해박한 화론이 눈부시게 펼쳐진 이 대목은 시서화 겸수의 문인취미에 무지하거나 산천을 유람하며 성령(性靈)을 얻지 못한 사람이면 묘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석전은 자신은 “기첩(幾疊)의 중산초경(衆山初境)을 지나 백운청람(白雪晴嵐)으로 심원한 국세(局勢)를 개정(概定)하는 중”에 불과하니 그 안의 용면거사는 과연 누구냐고 묻는다. 서화 배척당 만해의 속기(俗氣)를 경계하고 싶었던 것일까.

한편 한국 근대문학에서 타고르(Tagore, R.(1861-1941))의 문학적 영향을 논의할 때, 『님의 침묵』은 수용과 극복의 좋은 증거로 거론되는데, 석전과 만해는 각각 「타고올의 시관」과 「생의 실현」(1.2호)을 발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해박한 문학적 지식과 비평적 안목을 보여주는 「타고올의 시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1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는 인도 문명의 대표자이자 동서 문명의 조화자이며, 신사상의 개조자다. 그는 문학과 철학과 종교를 통합한 대문호로서 ‘신시대의 전구(前驅)’이며, 그의 출현 의미는 ‘달마(達摩) 동래(東來)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해는 『님의 침묵』에서 “무덤 위에 피무든 旗대를 세우세요”(「타고올의 시(GARDENISTO)를 읽고」)라고 외치면서 초월자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타고르를 비판했다. 석전과 만해의 개성은 이렇듯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

석전은 세 편의 글을 마지막으로 만해와 같이 글을 쓴 적이 없다. 만해가 3·1독립운동에 참여하고 2년 8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생긴 공백일 수도 있지만 이미 민족의 사표로 부상한 도반에 대한 예우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불교가 바깥으로 치닫는 만해의 삶을 안으로 잡아 당겼던 길항력이자 영혼의 해방 기술이라고 한다면, 석전은 경박과 치기로 흐를 수 있었던 그의 머리에 서권기 문자향의 서늘한 깨달음을 맑은 찬물처럼 끼얹어 줄 수 있었던 사우(師友)이자 영혼의 도반이었다. 만해가 시대의 불운을 운명의 행운으로 바꿀 수 있었던 동력은 이 두 개의 요인을 벗어난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그의 옆에서 석전이 시와 선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끼친 영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만해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전상승의 전통 속에서 학예일치의 이상과 시서화 겸수의 문인취미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던 석전에게 시와 선은 하나였다. 그는 말한다. 일찍이 시도가 완만해지는 요체, 즉 좌우에 떨어지지 않고 시의 큰 규칙을 밟아나가는 것은 신운(神韻)의 천뢰(天籟)를 창하여 정공(精工)의 인뢰(人籟)를 맞춘 후에야 가능하다. 이때 천뢰는 천재로, 인뢰는 인공(人工)으로 바꾸어 읽어도 된다. 아무리 천재라도 인공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기(文氣)와 기예(技藝)가 팽팽하게 맞섰을 때 영감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 시와 선은 하나가 된다는 시선일규론(詩禪一揆論)이다.

시란 문예의 소품이므로 도를 닦는 이들의 힘 쓸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로 본다면 우주간의 청숙한 하나의 기운이 넘쳐 흘러서 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의 눈빛은 마치 달빛과도 같아 천고를 비추며 부질없는 세상의 공명을 하찮게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를 말함에 어찌 아무런 음운과 절주가 없이 천지자연의 조화인 천뢰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sup>65</sup>

석전을 존경하여 따랐던 가람도 천재는 서권기와 문자향을 흡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천재라고 공정을 아니 닦아서서는 될 수 없다. 천재는 공정을 닦되 같은 동안에 보다 더 많은 수확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sup>66</sup>고 말한다. 이처럼 석전은 그림이나 글씨는 가슴속에 만 권의 책이 쌓였을 때 비로소 문자향이나 서권기로 피어난다는 도문일치론(道文一致論)을 계승하면서도 훌륭한 창작은 사람됨의 본바탕(天機)에 깔려 있는 진실성이 좌우한다는 천기론(天機論)과 습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수예론(手藝論)을 종합했던 것이다. 추사 김정희와 그의 제자 매수(梅叟) 조희룡(1789-1866)의 시서화론을 변증했다고나 할까.

65 「일종의 시방식은 한반도의 체제가 되었다」種詩式自爲半島體製, 『석전문초』, 위의 책, p.27.

66 이병기, 「서권기書卷氣」, 『가람문선』(신구문화사, 1966) p.199.

석전이 불경 공부를 하지 않고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미당에게 “이 사람이! 꼭 굴뚝 같네. 최남선은 서른이 훨씬 넘어서도 담배를 끊고 공부해서……”<sup>67</sup>라고 혀를 꼰꼰 찻던 이 유도 여기 있다. 시정신이란 시인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신념으로 사물의 진실을 추구하여 새 것을 창조하는 원동력임이며, 신심이란 진실한 생활과 바른 의식 그 자체라면 시와 선은 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니 안타까웠던 것 같다. 미당의 선배 석정 역시 “이제 신심이 나느냐?”고 묻는 석전에게 “저는 불교를 학문(철학)으로 배운 것이지 종교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매몰차게 대답했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다. 미당 또한 스승의 도반 만해를 “뵈오려 가는 것을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그만 그분의 열반을 당하고 말았다.”고 후회했는데, 이는 ‘정(情)의 미달’이 아니라 ‘최근 일세기에 있어선 그 도수가 높고 잘 선택되고 떳떳한 것’이었던 ‘사랑의 화력’ 앞에 선뜻 나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다.

스승의 ‘초연하신 말씀과 무집착한 풍모’를 닮고 싶었기에 신석정은 “일제에 저항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뿐, 그렇게 불리는 것을 탐탁하게 여긴 바도 없거니와 그렇게 불쾌하게 여긴 적도 없다.”<sup>68</sup>고 담담히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방 후 선

67 『서정주문학전집』 3, 위의 책, p.171.

68 신석정, 『난초앞에 어둠이 내리면』(지식산업사, 1974) p.298.

비의 지조와 운명<sup>69</sup>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던 미당은 “마치 교실에 붙잡혀 와 벌을 서는 아이같이” 지난날의 선부른 판단과 문자행위를 한없이 누우치다가 훼손(毀譽)와 포핍(褒貶)으로 어지럽던 봉애산방(蓬艾山房)의 마당 위로 흰 눈이 내려쌓이던 날(2000.12.24), 석전의 한시를 틸틈이 번역하다 남겨두고 한 마리의 학이 되어 ‘영원의 맥박’이었던 그의 곁으로 날아갔다.

죽음은 삶을 낳고, 삶은 죽음을 낳는다. 삶도 예술도 죽음으로 완성된다. 아니, 무력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삶은 삶이 되고, 예술은 예술이 된다. 작가의 절망과 죽음으로 완성되는 예술. 그것은 ‘님’을 보낸 뒤 “서릿발 첫새벽에 홀로 울고 있을 때”<sup>70</sup>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석전이 보여준 삶의 위기와 시선일규(詩禪一揆)의 엄격한 시관은 한국시문학의 시격을 높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또 다른 원천으로 만해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을 기다려 되살려지고, 재창조되었다.

69 『서정주문학전집』 3, 위의 책 p.248. 미당은 해방 후 행방불명된 중앙고보 시절의 스승 권덕규를 생각하며 “비록 자기 민족이 백년을 천년을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 사는 경우라도 선비는 그 지배국과의 사이에 어떤 정치적 동일보조라는 것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고, 견디어 살 수 있는 데까지 견디어, 기다려 보다가 죽게 되면 어떤 죽음으로건 그냥 죽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70 서정주, 『석전 박한영 한시집』(동국역경원, 2006) p.58. “이십칠 년 맺은 정이 구름처럼 허망하여 서릿발 첫새벽에 나는 홀로 울고 있소 雲歸二十七年契 感泣漢山霜曉初” 석전의 「금봉상인을 추도함 追悼錦峰上人」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이 책은 미당의 유고로 간행되었다.

